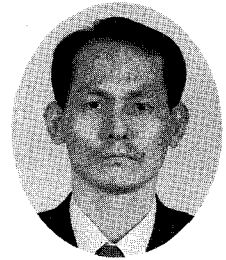


●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1. 계란의 계획생산을 위한 긴급조치 실시

지난 3월에 발표된 계란계획생산을 위한 전국계란수급조정협의회에서「계란 계획생산에 관련한 긴급조치」를 발표하였다. 발표의 배경에는 계란의 수급동향 및 향후의 예상이, 2001년 2월에 계획생산의 시기를 1년간 연장을 결정한 시점과 비교하여도 예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각 지역의 대다수의 수급정세를 살펴보다라도 긴급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긴급조치가 전국 생산자의 의욕을 꺾는 시책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생산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계속될 긴급조치 생산자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의 편성에 관한 검토는 9월까지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일본 양계협회 발책).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2. 농립수산성 산란계 사육수수 조사

농립수산성(농림부)은 금년 4월에「계획생산추진부회」를 설치하고 계획생산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계란생산에 관한 생산자의 의향이나 사육수수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7월중에 행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계획생산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계란생산의 형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현재의 사육수수 등을 묻는「상황조사」와 계란의 계획생산 등에 대한 경영자의 생각을 묻는(의향조사) 것으로 되어 있다. 대상농가는 사육규모가 1만수 이상의 약 2,300농가(생산자)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생산자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농립수산성에서는 설문지 조사의 집계결과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에 유의하여「계획생산추진부회」의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전국계란수급조사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조사항목 중에는 성계 암닭의 사육수수에 대한 문항이 있지만 이 조사에서 얻고자하는 사육수수는 현재 생산자가 한정된 사육수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1)행정적으로 난가기금보전액 환원청구 등을 실시하는 일은 전연 없고, (2)대답한 마리 수를 근거로 해당 생산자에 대한 사육수수 준수를 지도하지 않기로 하였고, (3)생산자의 사육수수에 대하여 생산자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은 방법으로 새롭게 생산자의 사육수수를 별도로 검토한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자가 솔직하게 사육수수를 밝히기를 바라고 있다.

이후의 예정은 7월 상순에서 하순까지 행정기관을 통하여 설문지조사를 실시하고 7월 하순에 설문지를 회수하여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조사결과를 집계·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9월 하순부터 제 4회 계획생산추진부회에서 설문지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여 9월 말에 전국계란수급조정협의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향후의 계획생산추진방법에 대하여」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계명신문 발책).

표1.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책)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30	140	140	150	145	75	1,600톤



특 제

1. 브로일러 사양농가 3% 감소, 부화장 병아리 출하율 1.7% 감소

2002년 2월 1일 현재 일본 육계사양농가는 2,900호로 전년대비 3%가 감소하였고 사육수수는 1억 5천 6백만 마리로 1%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소규모 사양농가의 지속적인 감소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전체농가 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3만 6천수이다.

지역별로는 사육농가가 증가한 곳은 관동·동부산간지대, 오키나와(沖繩)에서 증가하였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농가호당 사육수수가 증가한 지역은 본토 중앙북쪽지역(후쿠이:福井, 이시카와:石川, 도야마:富山), 관동·동부산간지대, 규우수(九州)지역에서 증가하여 전체구성에서도 규우수는 44.7%, 동북지역은 21.6%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6월28일 발표한 5월의 병아리 부화수수 중 브로일러용 병아리는 전년대비 5천116만수로 98.1%이고 이 중에서 출하된 병아리수는 4천 973만수로 98.3%였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는 브로일러 2억5천만수로 101.6%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6월 상순에 문의한 향후 3 개월의 병아리 예상 출하수수는 산란계의 경우 전년에 비하여 6월 104%, 7월 105%, 8월 103%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브로일러의 경우에는 6월 100%, 7월 102%, 8월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계명신문 발췌).

2. 멸종한 최대급 대형육용종의 환상적인 닭「천초대왕(天草大王)」복원 - 구마모토(熊本) 농업연구센타의 축산연구소

과거 구마모토에서는「비고(肥後)의 5가지 품종」으로 불려진 5 종류의 닭이 농가에서 사육되었으나 보급종에 밀려 사취를 감추어, 1976년부터 품종복원에 노력하여 4가지의 품종은 복원에 성공하였으나「천초대왕」은 복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7세대의 교배에 걸쳐 복원에 성공한 수컷의 최대 체중 6.7Kg이다.

구마모토 축산연구소에서는 멸종된 기간이 오래되었고 관련 문헌도 많지 않은데다가 중국에서도 「란산종」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1996년에 회소품종인「란산종」100수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천초대왕」의 복원에 착수하여 7세대 7년에 걸친 연구 끝에 70년만에 복원시켰다. 농가에서의 출하주령은 일반육계보다 2 배 가량 긴 12~14주령을 거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육용토종닭으로 사양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만들 계획이다(중앙축산회 축산 나비에서 발췌).

표2. 7월 닭고기 수입동향

(도매가격: 단위 엔, 日本食鳥協會자료 발췌)

품 목	국 별	동 경	오오사까	품 목	국 별	동 경	오오사까
뼈포함넓적다리고기	미 국	292	248	넓적다리고기	미 국	370	325
	태 국	383	399		태 국	340	308
	브라질	375	-		브라질	290	298
가슴고기	태 국	250	-	꼬치고기	태 국	605	466
	중 국	180	-		중 국	550	451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